

### 지방무역업체 공동 사용 비즈니스센터 6월 문 연다

서울에 사무소가 없는 지방무역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가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 들어선다. 또 창업에 나서는 예비 무역인들을 위한 무역인큐베이터도 만들어진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방 중소기업들이 서울에서 사업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찾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를 설치, 6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트레이드타워 지하 1층에 설치되는 비즈니스센터는 개인용 컴퓨터·팩스 등을 갖춘 사무실·상담실·공동회의실 등으로 구성

되며 수시로 무역협회의 다양한 무역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무역협회 회원사들에 무료로 개방되며, 지방기업은 예약할 경우 연속 5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무역인큐베이터는 1~2인이 쓸 수 있는 사무실 15개로 구성되며 업무보조자가 전화연락, 메모 및 음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역인큐베이터는 원칙적으로 6개월~1년 이용할 수 있는데, 무역협회는 무역창업 지원차원에서 이 공간을 실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5대 변수
- ① 주택담보대출 강화
- ② 부동산 후속 입법
- ③ 대선전후 규제 완화
- ④ 분당금 신도시 발표
- ⑤ 청약제도 개편 여부

## 설 이후 집값 5대 변수 주목하라

#### 광주·전남, DTI규제 수도권과 동일 적용 검토...시장 침체 악화 우려

오는 7월부터 전국 모든 지역의 주택 감원의 기준(60%)보다 규제를 강화해서 올해 부동산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에 따르면 3월부터 투기지역 내 대출금액 1억원 초과 대출의 경우 DTI 40% 규제를 적용하고, 7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단독주택 등으로 DTI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지난달 금융원이 '여신 심사 모범규준'을 통해 투기지역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DTI 규제를 적용토록 권장했던 것보다 한층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은행들은 또 1억원 이하 대출

도 DTI 50%를 적용하는 등 당초 금감원의 기준(60%)보다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올해 집값 향방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지방 주민들은 DTI규제 확대 여부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 시·도민들의 입장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 해를 누리지 못했음에도 대출 불이익은 동일하게 받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방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게 낮아진 데다 미분양 물량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DTI규제를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은 시장 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등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도 올해 집값의 중대 변수로 꼽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과 건설업계의 반발 확산 등으로 인해 입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어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안전으로 채택되지도 못했다. 따라서 관련 법안의 입법이 출몰이 미뤄질 경우 잠재돼 있던 주택 구매 수요가 되살아나 시장이 재차 요동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선을 전후로 공론화될 부동산 부문의 각종 규제 완화 방안도 배놓을 수 없는 변수다. 종부세 과세 기준의 상향 조정과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 자들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 각종 법안의 개정 요구가 선거 공약을 통해 현실화될 경우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의 규제에 따른 민간 건설사들의 공급 감소를 비롯 ▲6월 이전 종합부동산세 회피 매물 급증 여부 ▲6월로 예정된 '분당금 신도시' 발표 ▲3월 말에 청약제도 개편안 발표 등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좌우하는 주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중소 이전기술개발사업' 신청하세요

#### 업체당 최고 1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우수기술의 성장과 방위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을 오는 3월 8일까지 신청받는다.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보유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1년 이내, 개발비의 75%까지(최고 1억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9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체로,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업, 기술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체,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업체, 사업장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은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지원대상은 기술이전계약 체결 후 3년 이내의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로 ▲식식재산권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기술거래·평가기관을 통해 중개되거나 이를 기관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등이다.

자세한 사업안내는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gj.smba.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 임직원 30여명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9일 호남고속도로 서광주톨게이트 상행선에서 귀경객들에게 1kg짜리 쌀 3천포와 '4년 연속 전국 12대 우수브랜드 최다 선정' 전단을 배포하며 전남쌀을 홍보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공동주택단지내 도로 4월부터 자율 개설

4월부터는 공동주택단지내에 설치되는 도로를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만들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공동주택단지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로의 설치기준을 단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100가구 미만은 4m 이상, 100가구이상~300가구미만은 6m 이상, 300가구이상~500가구미만은 8m 이상, 500가구이상~1천가구미만은 12m 이상, 1천가구미만은 15m 이상의 도로를 지어야 한다.

개정안은 가구수와 상관없이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도로를 만들되 소방 및 비상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6m 이상(100가구 미만은 4m 이상) 도로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단지내 문고운영과 관련, 문고에 비치되는 책의 가격기준을 건교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제시하도록 했다.

현재 규정은 300가구이상인 경우 1천원 이상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격기준은 별도로 없어 주택사업자와 입주자간 분쟁이 잦은 실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 수출 증가율 5년째 두자릿수 ↑

#### 울산·인천 이어 전국 3위

광주시의 수출 증가율이 최근 5년 연속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와 반도체 등 수출액이 91억4천만 달러로 2005년 71억9천만달러에 비해 27.2% 증가했다.

이는 2004년과 2005년 수출 증가율 31%와 36%에 이은 것으로 전국 시도중 최고이다.

또 2002년 30억1천만달러 수출로 16.3%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5년째 두자릿수 증가율을 계속하고 있다.

시는 올 수출 증가율을 31%(12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말 100억달러 수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50억6천만 달러로 국내 전체 무역수지 160억달러의 3분1 가량을 차지했다.

이는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달성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 수출규모는 중화학 중심인 울산과 인천에 이어 3위 규모로 수출도시로 도약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28억6천만달러)와 반도체(25억3천만달러), 냉장고(17억달러) 등 3대 주력 제품의 수출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점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光銀 엑스포 통장 발매

2012년 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기원하는 엑스포(EXPO) 유치통장이 발매된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불 조성 및 홍보를 위해 20일 오후 여수시청 상 황실에서 '여수 엑스포유치통장' 발매식을 갖는다.

이 통장은 양도성예금증서(CD)로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광주은행은 판매 금액의 0.05%는 1차로 오는 4월 9일 BIE발사 전에, 2차는 여수 엑스포 확정 후 출현할 예정이다.

판매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5천억원 판매 때 2억5천만원이 후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엑스포 통장 발매가 여수 엑스포 홍보 및 시민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park@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세계스타·세기보청기